

동문칼럼

간부의 전투적 사고 역량을 높이는 길

(思考)



이상태

- ▲ 본교 초빙교수
- ▲ 수도방위사령관, 교육사령관 등 역임
- ▲ 예비역 육군중장, 육사 27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북측은 거듭된 우리의 대화제의를 거부한 채 지난 1월의 전면적 대결 선언에 이어,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 파기성명 발표, NLL에 대한 군사적 위협,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으로 남측을 계속 위협하고 있어, 우리의 안보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다행히도 군은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상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믿음직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황 발생 현장에서의 군의 대응 능력은 모두의 관심사항이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지 무려 55년이 지났고, 월남전 같은 소부대 전투라도 해본 세대들은 전역한 지 오래다. 또한 산업화와 함께 사회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이념적 갈등이 지속됨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화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군 간부 중 일부는 부지불식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실제 전투 상황이 전개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부대 안전관리에 급급하며, 군사대비 업무도 한 건의 일을 처리하는 관점에서 조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각급 부대가 맞을 수 있는 작전 상황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모든 부대의 작전활동에서 늘 기본이 되고 이해가 용이한 위병소나 초병운용 시의 전투적 사고 역량에 대해 살펴보자.

어떤 부대에서는 간부들이 위병소나 초소 운용 시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통제나 군기유지와 보고 등 부대 관리적 요소를 강조하고 중점 대비함으로 인해, 오히려 발생될 수도 있는 작전상황은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지난 연평해전에서 승리한 경우처럼 제대로 된 부대에서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위병소나 초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작전상황을 세밀히 그려보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이 찾아와 거수자 발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황, 초병을 안심시키며 자연스레 접근해 갑자기 총기 탈취 혹은 살상하고 도주하는 상황, 기습적으로 접근해 초병살해나 총기 탈취행위를 하는 상황 등으로 정례해 교육하고 태세를 점검하고 훈련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 발생 현장에서의 부대 관리적 요소들은 잘못되어도 국민은 알지 못하고 불안하지도 않으나, 초병이 피해를 입거나 대응조치가 잘못되었을 시에는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을 불안케 하며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도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간부와 부대의 실질적인 대응능력과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어 지휘관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평소 부대를 운용하면서 맞게 될 각각의 전투 상황에 초점을 맞춰 지휘관이 출신하여 지도하고 점검하며 훈련시켜 나갈 때 진정 싸워 이기는 강한 부대가 되는 것이다. 지혜와 소신을 견지한 가운데 지휘관인 내가 맞게 될 상황에 맞추어 부하와 부대를 훈련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부하들도 "맛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며 힘든 훈련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훈련을

통해 지휘관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군은 과학화 훈련을 강화해 실전성을 높이는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간부들의 전투적 사고 역량을 근본적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보다 먼저 지휘관이 주도하여 매일 매일의 업무 전반을 앞에서 예시한 것처럼 위기의식에 기초하여 전투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며 관리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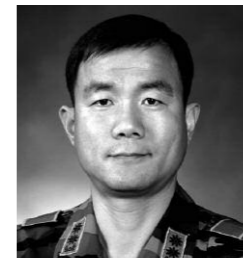
그리고 계대별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 지도 감독의 관점과 방식도 전투적으로 사전 충분히 교육하고 준비하여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양성·보수교육 기관의 관련 과목 교관들의 교육방법도 실질적인 것이어야 하며, '교육훈련 관리' 과목의 교육도 훈련관리 절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투적인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투적 사고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전장이 없다 보면 군은 위기의식이 약해져 행정적 업무가 넘치고, 부대 안전 관리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며, 비 전투적 행위가 일상화 되고, 불필요한 지시나 통제가 늘어나 부대가 피로해 지고, 실질적인 전투능력 또한 크게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졸업생 기고

병사들 속으로 파고들어라



서정희
중령, 1포병 3포단 대대장

지난해 만화 단행본으로 50만부 이상 판매, 온라인상 1일 40만건 이상 조회, 영화로 2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식객'에서 주인공이 삼계탕을 내놓으며 하는 대화 내용이다. "어제 오후 닭을 잡아 털을 벗긴 후 4℃정도의 냉장고에 넣어서 오늘 아침까지 숙성시켰습니다. 그러나 닭고기가 많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지방산에 비해 산화가 빨리 이뤄지기 때문에 숙성시킬 때 주의해야 합니다. 닭고기는 큰 항아리 솥에 한꺼번에 넣고 달인 국물과 함께 2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곰탕을 집에서 끓이면 맛이 나지 않는 이유가 양이 적어서 그렇듯, 닭도 한 마리씩 끓이는 것보다 같이 끓이는 것이 맛을 찾는 방법이지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디테일(detail)이 아닌가? 식객의 성공 이유는 바로 '디테일의 힘'에 있었다.

디테일은 '상대를 설득하는 가장 기본적인 강력한 무기'이다. 여러 분이 소대장 또는 중대장으로서 이 정도의 디테일로 상·하급자를 설득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디테일의 힘은 발에서 나온다. 식객의 저자 허영만 화백도 이 작품을 위해 500명 이상의 요리고수를 만나 그들의 요리비법을 옮겨 적은 책이 20권 이상이었으며, 10발 총 즉, 재장전의 시간이 혁명적으로 진보되면서 기병의 설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지만, 나폴레옹이 소총과 대구경 포를 가지고 유럽을 휩쓸던 18~19세기에도 기병은 강력한 병과였으며, 비행기로 공중 폭격이 진행되었던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소련의 코사크 기병들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현대에도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아직도 최신탄 무기를 착용하고 이동 수단은 말을 이용하는 이른바 말을 탄 보병인 '용기병(龍騎兵, Dragon)'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흐르는 기병의 힘과 가치는 이 시대 국방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지도 모른다.

장은 현장에는 있되 부하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분리돼 있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앞 또는 옆의 분대장을 육성파 수신호로 지휘하는 소대장은 전문대령관을 격퇴했으나, 육성으로 들리는데도 바로 옆의 분대장을 무전기로 찾는 소대장은 여지없이 돌파했다. 평상시 소대원들과 동고동락하지 않는 소대장은 전투현장에서 소대원들과 융화될 수 없으며, 분대장을 자신있게 지휘할 수 없으므로 육성이 들리는 거리인데도 무전기에 의존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현장 속으로 파고들어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부대를 성공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휘하게 될 부하들은 건강, 가정, 의지, 적응력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면 현장 속으로 파고들어 정말 디테일하게 알아야 한다. 소대장실 또는 중대장실에서 '분대원-분대장-소대장-중대장'으로 이어지는 정상적 지휘라인을 통해 특전인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피상적인 면일 가능성이 많다.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고통은 분대장이나 소대장에게 보고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동기, 평상시 잘해주었던 선임병, 어머니, 애인, 친구 등 지휘라인에서 비껴져 있는 사람들이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병 000는 상상적 일일결산을 통해서 어떤 사항들이 면담 및 관찰됐고, 동기 000와의 면담내용은 어떠하며, 어머니께는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했다" 라고 디테일하게 파악해 기록하고 보고 및 조치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공한 소(중)대장이 될 것이다.

어느날 연대장 또는 사단장이 여러분 소(중)대를 방문하여 어떤 사항에 대해 지적을 했을 때 "교병 O-O에는 △△△ 되어 있고, 육군 규정은 OOO라고 되어 있으며, 사단 야전에 규정은 OOO라고 되어 있어 상호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이것을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할 때 지금 실시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디테일하게 답변한다면 여러분은 상급자의 깊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일과시간 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야간, 휴일을 막론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열정을 쏟아 부은 두 발로 현장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전통군사문화 탐방

기병은 전통시대 최고의 전투부대였다

(騎兵)

최형국

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馬)이라는 동물을 길들이고, 전쟁에 사용하며 진화된 기병은 역사 이래로 수천 년간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전투부대로 인식되었다.

비록 산업혁명과 더불어 전쟁터에서도 일종의 군사혁명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살아 숨 쉬는 말 대신 강철로 만들어진 말인 탱크와 장갑차가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지만 그 전략의 핵심은 수천 년간 전쟁터에서 다듬어진 기병의 전략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군사용어에서 장갑부대를 '장갑된 기병(armored cavalry)' 혹은 '기계화된 기병(mechanized cavalry)'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조선이라는 국가는 기병이 없고 오직 보병으로만 움직였던 국가였을 것이라는 잘못된 편

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병이라고 하면 청기즈칸의 거대한 원나라를 연상하거나 서양의 철갑 기사단을 연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조선군 전술의 핵심은 기병이었다. 이는 그 이전 고려의 경우 기마전술에 뛰어난 거란족을 상대하며 기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였고, 이후 여진정벌과 몽고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얻은 결과물들이었다.

조선은 건국한 후에도 북방 이민족의 위협은 끊이지 않아 조선초기의 주적은 당연히 이들이었고, 이에 대한 방어 및 공격을 중심으로 조선군의 편제가 이뤄졌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초기 핵심 병서인 《진법》에는 기병을 중심으로 한 전략·전술들이 주를 이뤘으며, 보병은 기병과 동일한 비중으로 편성하였지만 그 실질적 공격 및 방어의 핵심은 기병이었다. 심지어 남쪽의 왜구를 방어하는 데에도 기병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화포를 이용한 방포법과 더불어 기병은 조선의 군사 공격 및 방어체계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병 위주의 전법은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무인선발 제도였던 무과시

험의 과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전기의 무과시험의 실기과목을 살펴보면,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 등이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활쏘기를 바탕으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와 창을 휘두르는 기창 그리고 말을 자유롭게 다루기 위한 일종의 무예적 스포츠인 격구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조선전기의 오위진법에서 기본적인 전투방식은 원거리에서 기사병이 활을 쏘아 적의 예봉을 꺾고 이후 기창병이 돌격해서 근접전투를 벌이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무과시험 과목은 조선 후기에도 거의 이어졌는데, 화약무기의 발달로 인해 초종이 추가되고 새로 도입된 마상무예인 편군이 편주(鞭耒)라는 이름으로 더해졌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조선전기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기병중심의 무인선발 규정은 대표적인 무과시험뿐만 아니라, 임금의 친위군 성격이 강한 내금위, 겸사복, 별시위 등 최고의 무인들을 선발하는 시험에서도 어김없이 기병의 장기였던 기사를 비롯한 기병무예들이 핵심을 이뤘다.

물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병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후 정묘·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기병에 대한 확신은 더해져만 갔다. 이런 이유로 조선 후기 정조시대에 만들어진 《무예도보통지》에 무예24기 중 기병을 위한 마상무예 6가지가 수록된 이유이기도 하다.

비록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연발 총 즉, 재장전의 시간이 혁명적으로 진보되면서 기병의 설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지만, 나폴레옹이 소총과 대구경 포를 가지고 유럽을 휩쓸던 18~19세기에도 기병은 강력한 병과였으며, 비행기로 공중 폭격이 진행되었던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소련의 코사크 기병들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현대에도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아직도 최신탄 무기를 착용하고 이동 수단은 말을 이용하는 이른바 말을 탄 보병인 '용기병(龍騎兵, Dragon)'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흐르는 기병의 힘과 가치는 이 시대 국방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지도 모른다.

육군사관학교 Korea Military Academy

타오르는 햇불

(재구가)

해달같이 눈부신 기백과 정열
끝없이 타오르는 햇불을 보라
동지들을 구하려고 제 몸 던졌네
저 남은 살아있는 의기의 상징
내 나라 내 겨레 위해서라면
재구처럼 이 목숨 아끼지 않으리

